

정시 늘고 수시 줄고... 수능 과목 구조 변경

2022학년도 대입 전략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시험 위주

선발 기준은 유지

수능대비 학습과

고3 1학기 내신 학습 병행

‘코로나19’ 확산의 어수선했 속에서도 새해는 열렸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예비 고3의 대입 경주도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번 입시는 정시가 늘고, 수시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많다. 수능시험 과목 구조도 바뀐다. 예비 고3들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과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 계획 등을 잘 살펴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형’ 구조로 변경=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655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94명 줄었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에선 전체 모집정원의 75.7%(26만 2378명)을 선발, 전년도(77.0%)에 비해 4996명 줄었다. 반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4102명이 증가한 8만 4175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수시 모집인원이 준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든 탓이 크다. 이번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선 7만 9503명(22.9%)을 선발한다. 전년도에 비해 선발 인원이 6580명 감소했다. 그 대신 학생

2022학년도 고3 시험 일정

3월 학력평가	3월25일	서울시교육청
4월 학력평가	4월14일	경기도교육청
6월 모의평가	6월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월 학력평가	7월7일	인천시교육청
9월 모의평가	9월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월 학력평가	10월12일	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	11월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진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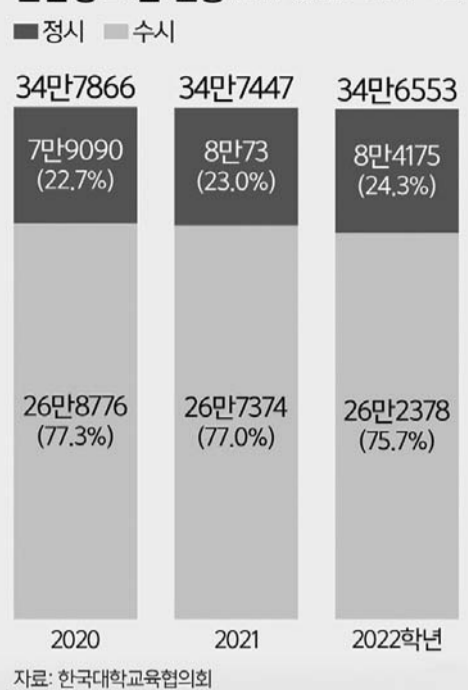
부교육과정에서 전년도보다 1582명 증가한 14만 8506명(42.9%)을 선발한다.

다만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시험 위주라는 선발 기준은 유지된다. 수시 모집인원의 86.9%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 정시에서 수능 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비율은 90.3%다.

수능시험 체제가 개편돼 올해 수능시험에선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기존엔 탐구 영역에서만 과목을 선택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선택형’ 구조로 바뀐다. 탐구 영역 역시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 선택과목을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둬야 한다. 국어는 모든 대학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이 없다. 하지만 수학 경우 일부 대학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때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

신입생 모집 현황 (단위: 명, 괄호 안은 비율)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 과학 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형 선택 속단 말아야=수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목표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전형 요소 가운데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고 같은 전형이 있는 대학 위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평소 이 전형을 노리고 준비해온 경우가 많

다.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순수 종합인지, 교과 종합전형인지 구분에 준비해야 한다. 전형 요소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특기자전형은 계량화할 수 있는 특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형태로 특기자전형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교과 성적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점이 크게 변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논술전형에서는 반영 비율로 적용되는 내신 성적보다는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논술과 함께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학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가 지원자의 50% 정도인 경우도 있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수능시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시에선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살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실패하는 영역이 없도록 수능시험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 군별 지원 패턴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군별 특성뿐 아니라 경쟁 대학의 지원율이나 점수 등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겨울방학 동안에는 국어와 수학, 탐구를 중심으로 수능대비 학습과 고3 1학기 내신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며 “절대평가인 영어 실력을 분석해 학습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가능

이달로 예정된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일정대로 응시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지침을 변경해 이번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별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응시인원은 유·초등부문 8412명, 중등·비교과부문 1만811명으로 집계됐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교육청에 신고한 후 안내에 따라 시험을 보낸다. 다만 1차 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확진자들과의 공정성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67명으로, 이 중 45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2차 교원임용시험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학생들 국제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호텔관광경영학부 학생들이 국제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광주대는 11일 호텔관광경영학부 4학년 김민지·안다빈·박수하·차슬비 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국제이벤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류 콘텐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서, 김민지 학생 등은 ‘Z AI: z세대가 만든 수원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Z AI: z세대가 만든 수원시간여행’은 K-드라마에 대한 외국인 반응과 Z세대 특징, 관광 트렌드 등을 분석해 보부상으로 떠나는 수원시간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특히 한국 보부상 의상을 입고 휴대전화 앱을 사용해 미션 수행 가능한 코스를 떠나는 여행이 진행되며, 미션 수행을 통해 영점을 받고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지 학생은 “기존의 관광 체험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Z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이미지 브랜드화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광주대학교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 이 같은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24시간 방역소독 즉각대응팀

광주시교육청, 올해도 운영

광주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장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4시간 방역소독 즉각대응팀’을 올해도 운영한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교직원 확진자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때 담당공무원과 전문방역업체가 현장에 출동, 학교시설을 방역하는 ‘24시간 방역소독 즉각대응팀’을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가동한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현장에 출동, 즉시 방역 조치에 나서는 시스템이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24시간 방역소독 즉각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 현장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는 현장대응팀과 코로나19 발생 학교 업무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대응팀도 별도 운영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 아이템 전시회

동강대 창업교육센터는 최근 대학 메이커 스페이스실에서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해 직접 개발한 창업 아이템 전시회 겸 창업동아리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동강대 제공)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